

세상을 이해하는 명언, 잠언, 속언

명언



전쟁, 평화에 대한 명언, 잠언, 속언

명언





전쟁, 평화에 대한 명언

- 전쟁은 변명을 인정하지 않는다.

<이비코스, 「단편집」, 미상~미상>

- 전쟁은 전쟁 경험이 없는 자에게나 재미있다.

<핀다로스, 「서정시와 무용, 단편들」, BC 517~ BC 438>

- 전쟁은 땅이 인육을 먹게 하는 것이다.

<맹자, 「맹자」, BC 372~BC 289>

- 계획은 유악 속에서 세우고, 승리는 천리 밖에서 거둔다.

<반고, 「한서」, 32~92>

- 군사를 동원하여 난을 평정하고, 폭력을 치는 데는 반드시 의로써 한다.

<장로, 「장씨총서」, 1617~1700>

- 군사를 키우는 데 천일, 이를 쓰는 데는 하루 아침

<시내암, 「수호지」, 1296~1370>

- 양떼를 모아 맹호를 친다.

<소진, BC 382~BC 286>

- 군자는 싸움을 피하지만,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.

<맹자,「맹자」,BC 372~BC 289>

- 그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.

<손자,「손자병법」,BC 545~BC 470>

- 나는 가장 정당한 전쟁보다 차라리 부정한 평화를 취한다.

<시세로,BC 106~BC 43>

- 적국이 잘 통치되고 국민이 하나로 결합된 국가라면,
적국에 대한 승리조차 장례식이 된다.

<오기,「오자병법」,BC 440~BC 381>

- 달팽이 뿔 위에서의 싸움

<장자,BC 369~ BC 289>

- 대궁의 화살도 그 종말은 얇은 비단을 뚫지 못한다.

<반고,「한서」,32~92>

- 무기 한가운데에서 법은 침묵한다.

<키케로,「밀로를 위하여」,BC 106~BC 43>

- 전쟁이 필요할 때 전쟁은 정당하다.

<티투스리비우스,「로마 건국사」,BC 59~AD 17>

- 목 마를 때 우물 파고, 난리난 걸 보고 활 만든다.

<유향,「설원」,BC 77~ BC 6>

- 배수의 진

<한신, BC 231~BC 196>

- 백전백승은 지선이 아니다.

<손자, 「손자병법」, BC 545~BC 470>

- 병력으로써 하기 전에 모름지기 백 가지 온화책을 시험해 봐야 한다.

<칸트, 1724~1804>

-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전쟁 자체보다 더 나쁘다.

<세네카, 「테에스테스」, BC 4~65>

- 병은 궤도이다.

<손자, 「손자병법」, BC 545~BC 470>

- 병은 신속을 존중한다.

<진수, 「삼국지」, 233~297>

- 병은 졸속을 듣다.

<손자, 「손자병법」, BC 545~BC 470>

- 전쟁이 전쟁을 기른다.

<프리드리히실러, 「피코로미니 부자」, 1759~1805>

- 삼십육계 도망치는 것이 상계다.

<「제서」>

- 싸움에서 이겨 장사가 우쭐하고 병졸이 태만하면 반드시 진다.

<반고,「한서」,32~92>

- 한 사람을 죽이면 당신은 살인자이나, 수천 명을 죽이면 당신은 영웅이 된다.

<베일비포투스,「몇 가지 주제에 관한 강론」,1731~1809>

- 싸움을 즐기는 자는 죄를 즐긴다.

<「구약」>

- 싸움의 시초는 독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.

<「구약」>

- 세계에 국가의 복잡성이 존재하는 이상, 전쟁은 세계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.

<드라이든,1631~1700>

- 작은 적이라 업신여기지 말고, 큰 적이라 두려워하지 말라.

<좌구명,「좌전」,BC 556~BC 452>

- 시작은 처녀와 같이, 종말은 달아나는 토끼와 같이

<손자,「손자병법」,BC 545~BC 470>

- 진을 친 뒤에 싸우는 것은 병법의 상식이다. 운용의 묘는 일심에 있다.

<악비,1103~1141>

- 양호 상쟁하면 서로 살지 못한다.

<사마천,「사기」,BC 145~BC 86>

- 영국은 각자가 자기 의무를 다할 것을 바라고 있다.

<넬슨, 1758~1805>

- 와신상담

<조엽, 「오월춘추」, 25~56>

- 전쟁의 신은 언제나 다수의 편에 선다.

<나폴레옹 1세, 「금언과 성찰」, 1769~1821>

- 용병의 길은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으뜸이다.

<「촉지」>

- 일기당천

<이능, 1636~1690>

- 전쟁이든, 사라이든 끝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잘 알아야 한다.

<나폴레옹 1세, 「금언과 성찰」, 1769~1821>

- 일부가 지키는 관문을 만부가 열지 못하더라.

<이백, 701~762>

- 일승 일패는 병가지상사

<「당서」>

- 전쟁은 원할 때에 일으키고 끝낼 수 있을 때에 끝낸다.

<마키아벨리, 「군주론」, 1469~1527>

- 잘 싸우는 자는 노하지 않으며, 잘 이기는 자는 싸우지 않는다.

<노자, BC 601~미상>

- 장수가 외방에 있을 때는 군명을 다 받지 못한다.

<사마천, 「사기」, BC 145~BC 86>

- 장수를 삼대 하면 망한다.

<사마천, 「사기」, BC 145~BC 86>

- 전쟁에 있어서도 전쟁이 최후의 목적은 아니다.

<셰익스피어, 1564~1616>

- 승자의 논리를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안녕을 위해 재빠르게 후퇴하는 것이 낫다.

<호메로스, 「일리아스」, BC 800~BC 750>

- 전쟁은 지옥의 귀신

<셰익스피어, 1564~1616>

- 전쟁은 평화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할 것이 아니다.

<시세로, BC 106~BC 43>

- 전투에서 도망치는 자는 죽음에 붙잡힌다.

<시모니데스, 「승리의 노래」, BC 556~BC 468>

- 어두운 곳에서는 도망치는 자가 뒤쫓는 자의 정복자이다.

<에우리피데스, 「레소스」, BC 484~BC 406>

- 땅의 이로움은 사람의 화합만 못하다.

<맹자,「맹자」,BC 372~BC 289>

- 노련한 장군은 적은 사방에서 공격한다.

<올리버골드스미스,「그녀는 정복하기 위해 굶힌다」,1728~1774>

- 칼을 든 군인이 있고, 호미 든 군인이 있다.

<러스킨,1819~1900>

- 파죽지세

<방현령, 이연수 등,「진서」,579~648>

- 패전같이 비참한 것은 없지만, 승전 또한 비참하다.

<웰링턴,1769~1852>

- 평화는 예술의 보모이다.

<셰익스피어,1564~1616>

- 평화는 나라를 길러주는 유모이다.

<헤시오도스,「노동과 나날」,미상~미상>

-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거부하는 일은 거의 없다.

<프리드리히실러,「빌헬름 텔」,1759~1805>

- 평화에도 승리가 있다. 그것은 전승에 못지 않게 칭찬 받을 일이다.

<밀턴,1608~1674>

- 적의 피가 만드는 얼룩은 기분 좋은 얼룩이다.

<푸블리우스시루스, 「격언집」, BC 85~BC 43>

- 적들을 잘 살펴야 한다. 그들이 우리의 결점을 제일 먼저 보기 때문이다.

<아리스토파네스, 「새」, BC 445~BC 385>

- 확실한 평화는 마침내 올 승리보다 낫다.

<한니발, BC 247~BC 183>

- 후생이 가외

<공자, 「논어」, BC 551~BC 479>

- 전략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쓰는 방법이다.

<헬무트폰몰트케, 「전략론」, 1800~1891>

- 가장 위대한 정복자는 싸움 없이도 이길 줄 아는 사람이다.

<노자, 「도덕경」, BC 601~미상>

- 진정한 정복자는 법을 만들 줄 아는 자이다.
그 외 다른 이들은 그저 지나치는 급류일 뿐이다.

<볼테르, 「풍속과 민족성에 관한 연구」, 1694~1778>

- 모든 정부는 원칙의 남용으로 멸망한다.

<몽테스키외, 「잡다한 상념」, 1689~1755>

- 통치할 때에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하고,
사물이나 사건은 마땅히 있어야 하는 모습으로 보아야 한다.

<루이드보날, 「잠언과 성찰」, 1754~1840>

- 군주제는 폭정으로, 귀족정치는 과두제로, 민주주의는 무정부주의로 변질된다.

<폴리비우스, 「역사」, BC 204~BC 125>

- 어리석은 자들이 정부의 형태를 논하게 하여,
가장 훌륭한 정부가 가장 잘 다스리는 정부임을 확인하게끔 하여야 한다.

<A.포프, 「인간론」, 1688~1744>

- 자유란 법이 허용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.

<몽테스키외, 「법의 정신」, 1689~1755>

- 어떠한 종류의 정부이든 인간은 그 안에서 속박당하며 살면서
자신은 자유롭다고 믿도록 만들어졌다.

<스타니스와프1세, 「친절한 철학자의 작품들」, 1677~1766>

- 통치는 사람의 몸과 같아서 가장 심각한 질병은 머리에서 생겨난다.

<소플리니우스, 「서한집」, 61~112>

- 우리가 생명을 경시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.
그러나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.

<라로슈푸코, 「성찰 또는 도덕적 격언과 잠언」, 1613~1680>

- 자유란 다른 재화를 누릴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재화이다.

<몽테스키외, 「성찰과 사유」, 1689~1755>

- 자유,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 위에 세운 왕국이다.

<휴고그로티우스, 「전쟁과 평화의 법」, 1583~1645>

- 이론은 자유의지론에 반대된다. 경험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.

<새뮤얼존슨, 「제임스 보스웰의 새뮤얼 존슨 전기」, 1709~1784>

- 우리가 감탄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, 접촉하는 곳이 있고, 살고 싶어 하는 곳이 있다.

<라브뤼에르, 「성격론」, 1645~1696>

- 평화는 민족들을 더욱 행복하게 하지만 사람들은 더욱 나약하게 만든다.

<보브나르그, 「성찰과 잠언」, 1715~1747>

- 폭력은 폭력을 낳는 버릇이 있다.

<아이스킬로스, 「아가멤논」, B.C. 525~B.C. 456>

- 자신보다 훨씬 강한 자에게 진 사람에게는 어쨌거나 영광이 있다.

<푸블릴리우스시루스, 「격언집」, BC 85~BC 43>

- 패배는 용감한 자들의 명예도 훼손시킨다.

<살루스티우스, 「유구르타 전쟁」, BC 86~ BC 35>

-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도 위태롭지 않다.

<손자, 「모공편」, BC 545~BC 470>

- 대패배가 아니라면, 대승리는 대단할 것이 전혀 없다.

<웰링턴, 1769~1852>

- 승자는 패자의 환대를 기대할 수 없다.

<베르길리우스, BC 70~BC 19>

- 패자가 울면 승자는 몰락한다.

<에라스무스, 1466~1536>

- 패자가 패배를 인정하게 만드는 자만을 승자라 할 수 있다.

<클라우디아누스, 370~404>

- 복이 있는 신들은 폭력을 좋아하지 않는다.

<호메로스, 「오디세이아」, BC 800~BC 750>

- 폭력의 업적은 오래가지 못한다.

<아테네의솔론, 「엘레지」, BC 640~BC 560>

-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싸움이지 승리가 아니다.

<파스칼, 「팡세」, 1623~1662>

- 키가 작으면 창을 쥐게 하고 키가 크면 활을 들게 한다.

<오기, 「오자」, BC 440~ BC 381>

- 복을 치며 공격하다.

<공자, 「논어」, BC 551~BC 479>

-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슴이 이끄는 사자들의 무리가 아니라 사자가 이끄는 사슴들의 무리이다.

<<알렉산드로스 3세, BC 356~BC 323>>

- 전투를 앞둔 병사의 눈빛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쟁을 하자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.

<오토 폰 비스마르크, 1815~1898>

- 겪어보지 못한 자에게 전쟁이란 달콤한 것이다.

<에라스무스, 1466~1536>

- 한 명의 장군이 공을 세우니, 일만 명의 백골이 쌓이는구나.

<조송, 「기해세」, 828~미상>

-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 다음으로 비참한 것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다.

<아서 웰즐리, 1769~1852>

-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는 진실이다.

<아이스퀼로스, BC 523~BC 456>